# 文대통령 약속 첫 실험대 '경전선 전철화'

## 최근 전남 방문해 여러 현안 사업 지원 약속

## 예타 재조사 긍정 결과로 정부예산 반영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전남 방문에서 여러 현안 사업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구체화의 첫 실험대는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구간 전철화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의 약속이 현실로 다가와 수십년간 호남 소외의 상징인 경전선 전철화로 호남인의 눈물을 닦아주는 계기가 될 것인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남 무안 도청에서 열린 전남도의 '블루이코노미 경제비전 선포식'에서 "광주 송정에서 순천까지의 경전선 전철화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겠다"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부산까지 운행 시간이 5시간 30분에서 2시간대로 단축돼 호남과 영남 사이 더 많은 사람과 물류가 오가고 전남과 경남이 함께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 현안 중 현재 진행중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전선 광주 송정~순천간 전철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구체화의 첫 작품이 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달 26일 경전선 광주 송정~순천간 예비타당성 현장 조사를 순천 소재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에서 진행했다.

이날 재조사는 KDI와 학계, 전문기술자 등 5명이 참여해 나주, 화순, 보성, 순천 등 경전선 경유지 자치단체로부터 사업필요성을 보고받았다.

KDI는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철도자료 등을 받아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KDI 예비타당성 재조사에서 경제성 평가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의 종합평가(AHP)만 남는다.

지난해 10월 말 기획재정부가 2014년부터 KDI에 맡겨 진행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평가 사업 추진 기준인 B/C 1.0에 근접한 0.85가 나왔지만 근소한 차이(0.011)로 종합평가(AHP)를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지원 의지가 확실한 만큼 AHP는 정치적 요소를 감안한 종합평가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되고 있다.

전남도는 특히 예비타당성 재조사가 11월 이내에 완료돼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기본설계비 10억원 반영을 목표로 뛰고 있다.

또 예타 재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기본계획수립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경전선은 광주 송정역에서 부산 부전역까지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유일한 철도교통망으로 노선 중 영남지역은 복선 전철화 사업이 이미 완공 혹은 진행 중이지만 호남지역인 광주에서 순천까지 117㎞는 일제강점기인 1930년 건설된 이후 한 번도 개량되지 않고 단선 비전철구간으로 남아 있어 호남 소외의 상징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열린 전남 블루이코노미 경제비전 선포식에서 발표를 마친 김영록 전남지사와 악수하고 있다.

특히 비탈과 굴곡이 심한 구간이다 보니 오르막에서 차륜 공전이 발생하고 내리막 구간에서는 자연 정차에 따른 운행 장애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안전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88년간 현재 북한 철도와 같이 일제시대 모습 그대로 낙후의 상징으로 남아 있는 셈이다.

광주 송정에서 순천까지의 경전선 전철화사업은 총 연장 107.6㎞에 1조 705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부산까지의 운행 시간이 5시간 30분에서 2시간대로 줄게 되고 영호남 간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두 지역의 동반성장, 남해안권 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순천에 사는 김모(43)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순천 경전선 전철화사업에 대한 지원의지가 큰 만큼 '호남 소외' 상징인 이 구간이 조기 착공하면 호남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김정환 기자

## 동구, 동명동 주민역량강화 동명클래스 운영

광주 동구가 동명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본격 추진에 앞서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인 '동명클래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동명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이 직접 마을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된 동명클래스는 동명동 현장지원센터 지원 하에 지난달 3일부터 오는 22일까지(매주 월 오후4~6시) 산수동 동구마루에서 진행된다. 각 3회로 이뤄진 교육은 나무벤치를 만드는 '나무전거리 목공학교'와 마을 취약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주민이 마을 정원을 직접 꾸미는 '동명마을 정원학교' 등 2개 과정으로 꾸며졌다.

## 서구, 꾸러들의 여름숲체험 "여름 무더위 안녕"

광주 서구가 여름방학을 맞이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꾸러기들의 여름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시 속 어린이들에게 자연을 주제로 숲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을 만나고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

체험프로그램은 풍암생활체육공원에서 숲산책을 시작으로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에서 나만의 나무 도감 만들기 등 실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오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총 5회 무료로 운영되는 체험은 어린이들이 자연의 가치와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서구에 거주하는 유아(7세) 및 초등학생 저학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24일(수)까지 서구청 공원녹지과(062-360-7899)로 문의하면 된다.

## 남구 "청소년 영어캠프 참가자 모집 서두르세요"

광주 남구는 여름방학을 이용해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2019 남구 청소년 영어캠프'에 함께할 참가자를 공개모집한다.

16일 남구에 따르면 이번 영어캠프는 남구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소재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모집 인원은 80명이다.

영어캠프는 오는 8월 6일부터 7일까지, 8월 8일부터 9일까지 각각 1박 2일 일정으로 2차례에 걸쳐 나눠 진행된다.

참가자 접수는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31일까지 선착순 접수이다.

## 북구, 북구새마을금고와 아기사랑 통장 출시

광주 북구가 새마을금고와 협업해 새로운 금융상품을 출시한다.

북구는 "오는 19일 11개 북구새마을금고와 지역희망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연 6.0% 금리의 '북구 아기사랑 통장(정기적금)' 금융상품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북구 아기사랑 통장' 상품은 양육비에 부담을 느끼는 예비부모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높은 금리의 적금 상품을 통한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용적 금융복지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별도의 조건 없이 연 6.0%라는 파격적인 금리의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으며 오는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0개월간 광주각화지점과 제일양산지점을 제외한 북구 소재 새마을금고(지점 포함 27개소)에서 판매된다.

북구 거주자 중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가입이 가능하고 월 납부한도는 5만원부터 20만원까지이며 36개월 동안 고정금리가 유지된다.

## 광산구 "가족과 함께 도서관으로 북캉스 떠나요"

광산구립 이야기꽃도서관이 27일 오후 1~7시 시민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한 '그림책 여행패키지, 북캉스'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도서관에서 그림책을 즐기며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작가와의 만남,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꾸며진다.

북캉스 문은 김상근 그림책 작가가 연다. 그는 〈두더지의 고민〉으로 2014년 이탈리아 볼로냐 아동도서전에서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고, 〈두더지의 소원〉, 〈가방 안에 든 게 뭘까?〉 등을 펴냈다. 김 작가는 이날 '별 낚시, 따뜻한 이야기'를 주제로 참가들에게 이열치열의 시원함을 선사한다.

바통을 이어받은 홍진영 그림책창의교육지도사는 '그림책 속 긍정과 행복'을 주제로 초등학교 저학년과 꽃방향제 만들기, 유치원생 가족과 손 모양 석고 뜨기 체험을 진행한다. 오후 5시부터는 이야기꽃도서관 독서동아리 도슨트 회원들이 '도서관에 도깨비가 산대요'를 이어간다.

임형택 기자

## 이용섭 시장, 수영대회 안전·홍보 다잡기

### 주경기장서 확대간부회의

### "홍보 부족…유튜브 제작"

2019광주세계수영대회 조직위원장인 이용섭 광주시장이 16일 대회 닷새째를 맞아 주경기장인 남부대에서 확대 간부회의를 갖고 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안전과 홍보에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남부대 삼애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다"며 "아직까지는 큰 사건·사고 없이 모든 경기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성공개최의 가장 큰 적은 방심인 만큼 3000여 군·경·소방·의료요원들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현장 위주의 철저한 안전대책을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히 "수영대회 홍보가 많이 부족해 아직도 광주 이외의 지역에서는 대회 개최를 잘 모르고 있거나 대회열기가 전혀 없다"며 "전국적인 분위기 제고를 위해 중앙언론이 더 많은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포털사이트에 배너광고를 실시하고 감동적인 장면들을 유튜브로 제작해 유통하는 등의 방법론도 제시했다.

서은홍 기자

## 광주전남중기청, 일본 수출규제 대응 '애로신고센터' 운영한다

광주전남중소벤처업청이 일본 수출규제로 경영 애로를 겪는 지역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TV, 스마트폰,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 에칭가스 등 3개 필수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함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결정됐다.

광주전남중기청은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 피해 대응을 위해 15일부터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피해와 애로·건의사항이 센터로 접수되면,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매출감소 등 피해가 구체화된 기업에는 우선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오는 8월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요건에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을 추가하고, 기존 자금보다 조건을 완화해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조건은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기존 3년간 2회까지 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도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규제회피, 대체 수입선 확보 등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사업'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가 발생했거나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은 광주전남지방중기청 수출지원센터 내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062-360-9194)'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은홍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석면 해체공사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석면조사
측량>>토목설계>>도시계획
토목공사>>창업상담>>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노동법 기업컨설팅 ▶산재업무대리
▶급여체계 정비사 ▶징계(해고)자문
▶4대보험 무료대행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